

김영남 방중의 의미와 북한의 대내외정책 전망

1999. 6

최춘흠 (북한정치군사연구실 연구위원)

홍용표 (북한정치군사연구실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문 제 제 기	1
II. 김영남 방중의 의미 및 성과	2
1. 북한 권력구조 관련 의미	2
2. 북·중관계의 복원	3
3. 외교적 고립의 탈피	4
4. 경제적 지원 확보	4
5. 대미정책상의 필요성	5
III.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정책 전망	8
1. 대내정책 전망	8
2. 대외정책 전망	9
3. 남북관계 전망	11
IV. 정책적 고려사항	13

I. 문 제 제 기

-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6월 3-7일 당·군·정의 요인 50-60여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회동함.
- 북한은 김영남의 방중을 전후하여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음.
 -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의 대화분위기를 강화함.
 - 북경에서의 비밀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차관급 회담에 합의함.
 - 러시아 외무부 장관 및 일본의 초당적 방북단의 평양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대외활동은 최근 미·중간의 신냉전 기류, 중·러간의 협력관계 강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한·러관계의 진전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는 김영남의 중국 방문의 목적, 의미 및 성과를 분석하고,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대남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II. 김영남 방중의 의미 및 성과

1. 북한 권력구조 관련 의미

○ 김영남 일행의 방중은 1998년 9월 북한의 헌법개정 및 권력구조 재편 이후 북한 수뇌부의 최초 외국 방문임.

○ 당초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예견되었으나, 북한은 김영남을 대표로 보냈으며, 홍성남 내각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비롯, 백남순 외무상, 김일철 인민무력상 등 당·정 고위 간부가 수행함.

- 이와 같은 방문단의 구성은 북한 헌법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이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공식대표한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은 김영남을 국가수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향후 김정일은 중요한 대내외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는 한편 대외 활동, 특히 의례적·명목적 행사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을 내세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2. 북·중관계의 복원

○김영남의 중국 방문은 91년 김일성 주석의 방중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진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공식방문으로 한·중수교 이후 불편했던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복원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북한의 방북단에 권력 서열 상위의 고위관리들을 대거 포함된 것은 북한 지도부가 북·중관계 회복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임.

○김영남은 중국의 리펑(李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총리 및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의 연쇄회담에서 상호 노선인정을 통해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과시함.

- 이 밖에도 양국은 향후 당·정간의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킨다는데 합의하였으며,
- 국방장관 및 외무장관간의 별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군사협력방안과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보조방안을 논의하였음.

○아울러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과 '21세기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데 대한 대응의 의미도 담고 있음.

3. 외교적 고립의 탈피

- 김영남의 중국 방문은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후 5년여간 지속된 외교단절시대에서 탈피,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음.
- 장쩌민 주석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를 권유하였는 바, 북한은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7월로 예정된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시, 신 북러우호조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간의 관계를 재정립 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사민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를 단장으로한 초당적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북한은 이를 계기로 북한의 로켓 시험발사 이후 경색되어 온 북·일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임.

4. 경제적 지원 확보

- 김정일 정권은 최근 「강성대국 건설」 구호 중 ‘경제 대국’ 건설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제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장기적인 경험 및 원

조 획득 가능성을 탐색함.

○김영남 일행의 방문에 앞서 양국 실무진은 38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중 채무문제를 비롯한 경제협력문제를 집중 협의, 23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채무와 15억 달러 규모의 민간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연기하고, 일부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데 합의하였음.

○주룽지 총리는 어려운 북한 경제사정을 감안, 올해 15만톤의 식량과 40만톤의 코크스 무상원조를 약속함.

5. 대미정책상의 필요성

○북한의 김영남은 중국 수뇌부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강권정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연대를 과시하였음.

○최근 중·미간의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코소보 사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무력행위와 특히 벨그라드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폭격사건과 관련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미국이 「Cox 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핵기술정보를 훔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중국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오히려 중국은 24개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6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한 중국은 미국이 TMD개발에 대만을 포함시키고 ABM무기체제와 관련된 군사기술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만이 TMD에 포함될 경우 중·미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누차 경고함

○북한은 이와 같은 중국의 대미견제심리를 이용, 미국의 압력에 대한 공동대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미국의 대 유고슬라비아 공격을 “앞으로 조선반도에서의 북침전쟁을 위한 시험전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바(「로동신문」, 6. 6), 이는 ‘북한이 제2의 유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중국의 힘을 빌어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
- 또한 북한은 「Cox 보고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핵무기고를 가지고 핵위협을 일삼으며 핵전쟁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최대의 범인은 미국”이라고 비난하며(「로동신문」, 6.8),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아울러 페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한·미·일의 포괄협상

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관계가 필요하였을 것임.

- 북미관계개선 문제 및 대북 포괄협상안에 대해 중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며,
- 특히 북한은 4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크게 얻지 못하였음을 상기하여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과의 협력 증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주한미군철수문제, 평화협정 문제, 북한미사일개발문제 등과 관련, 북한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대미협상력을 높이고자 하였을 것임.

III.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정책 전망

1. 대내정책 전망

○김영남은 리평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중국의 당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그동안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부정적 인식을 견지해 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큰 변화를 의미함.

○그러나 이와 같은 언급이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김영남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면서도 “조선은 김정일 장군의 영도하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중국도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개진함.
- 김영남의 방중 대표단에는 경제각료가 대부분 제외되었으며, 이는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것이라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아울러 북한 방문단이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상하이로 방문하면서도 양푸특구 등 경제개발 지역을 시찰하지 않고, 상하이박물관 등 ‘의례적인’장소만 둘러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요컨대 북한은 북·중우호관계를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은 지지하
되, 자신들은 ‘조선식’ 개발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북·중간 교류와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개혁·개
방정책이 점진적이거나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2. 대외정책 전망

<북·중·러 삼각관계의 강화>

○최근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북·
중·러 세나라 사이에 우호관계가 돈독해 지고있음.

- 중국은 유고주재 자국 대사관 피폭과 핵기술 스파이활동 문
제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계기로 러
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러시아는 ‘미국독주’의 견제와 한반도에서의 발언권 회복 등
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개선
을 모색하고 있음.

○북한은 김영남의 방중을 계기로 향후 양국 수뇌부간의 상호방문

을 추진하는 등 북중우호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북한이 제안한 중국 국가대표단의 방북초청을 수락함.
- 금년 10월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북중관계의 진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북한은 러시아와의 新 북·러우호조약 체결을 통해 북방삼각관계의 재정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를 자국의 외교력 강화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미·중 경쟁관계의 활용>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대미 협상에서 중국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북한은 대미협상에서 더욱 고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원하고 있는 바, 미국과의 완전대결 구도를 형성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대미관계를 악화시킬 정도로 북한 입장을 지지 하지는 않을 것임.

- 중국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북한에게 미·일 등과의 관계 개선, 핵·미사일 개발 포기, 대외개방 등을 권유할 것이나, 미국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그 강도 및 속도를 조절할 것

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중간의 경쟁관계를 이용,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며 자국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가능성이 큼.
 - 과거 북한은 중·소 갈등관계를 이용, 양국사이에서 소위 ‘시계추 외교’를 펼친바 있음.
 - 북한이 당장 미·중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를 시도하기는 힘들 것이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양국의 경쟁 심리를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활용할 것이며, 중·미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북한은 이와 같은 의도를 더욱 분명히 표출할 것으로 전망됨.

3. 남북관계 전망

- 김영남이 중국 방문시 남북차관급회담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임.
- 북·중관계의 복원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임.
 -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중국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

였으며, 장쩌민 주석도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권유하였는 바,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김영남의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와해되었던 북·중 고위층간의 채널이 복구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의 탈피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북한 지도부가 페리의 방북, 김영남의 방중,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등을 통해 북한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남북대화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물론 중국 및 러시아도 대북포용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 하고 있는 점도 북한이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IV. 정책적 고려사항

- 우리 정부는 이번 북·중관계 복원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긍정적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함.
-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증진은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히려 중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그 동안 4강외교를 통해 확보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협상안」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국 및 소련의 긍정적 역할이 필요함.
 - 특히 4자회담과 관련 러시아가 자국이 소외된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례를 감안할 때, 현재 한·미·일 공조하에 마련된 「포괄적 협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향력 약화에 대한 우려 혹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중국이 김영남을 국가수반급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향

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김영남을 대표로 내세울 경우 이에 대한 반박 논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으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방중시 중국은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김영남의 상대역할을 담당하는 등 김영남에게 국가수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하지 않았음.
- 이는 중국이 김영남은 단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으로만 취급하며, 김정일을 사실상의 국가수반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임.
- 페리의 방북시 클린턴이 친서를 김영남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냈으며, 김영남은 단지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도 정상회담시 김정일이 나서야한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예가 될 수 있음.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용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외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채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6,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6,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0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김영남 방종의 의미와 북한의 대내외정책 전망

統一情勢分析 99-03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정치군사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代), FAX : 901-2542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66-0892

인쇄일 1999년 6월 일

발행일 1999년 6월 일
